

어린이 책꽂이

▲명혜=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찬 한 소녀가 구세대의 인습과 맞서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역사동화다. 사회의 통념과 시련을 딛고 꿈을 키워가는 주인공 명혜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속에서 실감나게 펼쳐진다. <창비·8천500원>

▲난 이제 절대 울지 않아=한창 징징대며 떼쓰는 아이들에게 눈물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림책. 속삭여, 무서워, 또는 행복해서 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무조건 감정을 숨기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교과이야기·9천원>

▲이 세상에는 공주가 꼭 필요하 =말도 더듬고 똥똥해 새 학년만 되면 놀림을 당하는 한송이와 자신이 공주라고 믿는 춘희와의 따뜻한 우정을 그리고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춘희를 통해 진정한 '공주'의 의미를 전한다. <녓은산·6천800원>

▲진짜 진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까=고대 로마의 골목길, 원형경기장 등 로마의 이모저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어린이들에게서 구문법의 원형인 고대 로마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다양한 로마의 모습을 겹과 속까지 함께 보여줘 로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준다. <대교출판사·8천500원>

▲로지의 이혼방해작전=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이야기.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주인공 로지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이혼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여준다. <미래 M&B·9천원>

영화 통해 사진의 본질 들춰보기

사진, 영화를 캐스팅하다 진동선 지음

한국 멜로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남자 정원(한석규 분)이 주인공이다.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 영화는 여는 작품처럼 극적인 장치를 통해 관객들의 눈물을 억지로 짜 내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에서 관객의 감정을 울려라게 하는 건 몇장의 '사진'들이다.

지방 소도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원의 가게에 홀로 찾아온 할머니가 찍고 간 영정 사진, 사랑하는 여인 다림(심은하 분)의 모습이 담긴 사진, 정원이 직접 셀프 타이머로 찍은 환한 웃는 표정의 영정 사진 등...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덕에 '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된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증명한다.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사진 비평을 전공한 사진평론가 진동선씨가 펴낸 '사진, 영화를 캐스팅하다'는 사진이 중요한 모티프가 된 영화를 통해 사진의 본질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다. 저자는 영화와 사진뿐 아니라 문학, 철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히 '당신이 찍은 사진 한장은 흘러버린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회로가 된다'며 사진을 통해 삶을 들여다 보기를 권한다.

영화 25편 속에 담긴

사진의 역사 등 재조명



사진은 '존재 증명'을 잘 드러내는 장르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정원은 다림의 초상사진을 찍고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으며 생을 정리한다.

이 책은 사진의 역사를 개괄한 '사진의 탄생', 현대인의 삶을 좀 렌즈로 포착한 '일상의 초상', 누구나 느끼는 삶의 흔적을 담아낸 '사진과 트라우마', 사진에 얽힌 거짓과 참의 문제를 풀어보는 '기억의 프레임' 등을 주제로 모두 25편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초상 사진'은 사진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존재 증명'을 잘 드러내 보인다.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 순박한 시골 청년 석종과 에이즈를 앓고 있는 다방 재지 순정의 사랑은 그들이 행복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존재감을 갖는다.

책은 그밖에 사진이 일상을 파괴하는 근원이 되는 영화 '올드보이'를 비롯해 '메멘토', '텔미 썬딩', '타윈 투 리브', '클로저', '오버 더 레인보우', '뽀빠이', '거울 속으로', '시티 오브 갓' 등을 통해 사진이 갖고 있는 기억, 님, 상처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드러낸다.

<휴형출판·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

세기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다. 주 내용은 한 임금의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임금은 국사를 행할 때 항상 세 가지 질문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셋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나고 그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많은 학자들과 신학들이 갖가지 해답을 제시하였으나 임금의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급기야 임금은 성자로 잘 알려진 산골의 은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은자는 대답 없이 발만 갈았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괴투성이 된 청년이 달려나왔다. 임금은 자기의 옷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 주고 정성껏 돌보았다. 알고 보니 그는 임금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신하였다. 그는 임금의 간호에 감격하여 원한을 잊고 더 충성스런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임금은 은자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은자는 해답이 이미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내 앞 사람에게 최선을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작품을 70년대 중반에 접하였고, 그 시기는 내가 시골 면사무소에서 6급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나는 현자가 답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꼭 실천해 나가리라 마음깊이 다짐하였다.

그리고 나는 공무원 초기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역마살이 끼어 고향 해제면사무소에서 무안군청으로, 또다시 광주시로 근무처를 옮겨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기만 해도 조직 분위기가 대단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특히 광주시는 지금과는 달리 집단주의와 배타적인 조직행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굳은 각오와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뿌리 내리기가 정말 어려웠다.

때문에 나는 많은 정신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안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에 빠졌었다.

이 과정에서 내게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준 것은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세 가지였다. '지금, 내 앞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터널과도 같았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진심으로 대하는 나에게 달려있던 타인의 마음이 열리고, 단단하게만 보였던 조직의 벽도 허물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사실도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오 행 원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뉴욕미술시장에선 어떤 작품이 경매될까

미술시장의 유혹 정윤아 지음

얼마전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가 한국미술품 경매시장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낙찰됐다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다. 이제 미술품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구매의 대상,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위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소유'하고 투자하는 등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뉴욕 다이나믹 프로젝트 갤러리 등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아씨의 '미술시장의 유혹'은 이같은 미술시장의 흐름을 재빨리 따라잡은 '보고서'다. '미술시장으로 본 현대미술'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대 미술시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뉴욕미술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뉴욕 미술시장의 형성과정과 발전기, 전성기 등으로 나눠 현대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역대 경매의 주요 거래작품, 거래가격, 화랑과 딜러의 역할 등도 소개했다. 현대미술작품 도판이 시원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등 볼거리가 풍부해 화집으로 가까이 두고 봐도 좋을 듯 하다. <아트북스·2만3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민영환 '해천추범'에 윤치호 일기 등 추가

해천추범 ... 조재곤 편역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일주 기행문은 민영환의 '해천추범(海天秋帆)'이다. '해천추범'은 민영환이 대한제국 특사 자격으로 189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한 뒤 쓴 책이다.

'해천추범-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는 편역자 조재곤씨가 민영환의 '해천추범'을 번역하고, 사절단 일원인 김득련의 한시집 '한구금초'와 윤치호의 '윤치호 일기'를 덧붙인 것이다. 관련 사료와 사진들도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특히 편역자 조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등 기행문에 등장한 지역의 대부분을 직접 답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종이 니콜라이 2세에 보낸 친서를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민영환이 1896년 4월1일~10월21일까지 6개월 21일 총 402일 동안 접한 나라는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몽골 등 11개국. 일기체의 글에는 저자가 받았을 문화적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책과함께·1만2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삼성빌딩 임대

충/별/안/내

7F	사무실
6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5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4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3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2F	남양알로에
1F	LG텔레콤 임대(33평) 골프웨어

★대형주차장 완비
★병·의원 입주시 임대료 완료시 30% 할인
★재개발지역 확정, 투자가치 높음
★1층 33평 (의류, 약국, 서점 등)

■약도

동강대정문 동강대 밀바우 시거리 동강주IC

건물위치: 북구 우산동 258-3(말바우사거리) |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 010-8285-3170

Happy Family 페스티벌

5월에 브라비아를 샀다 PLAYSTATION®3의 즐거움까지 쏟아졌다.

브라비아 X시리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Sony가 준비한 즐거움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봄날을 만들어 보세요

즐거움 1: PS3 콘솔
즐거움 2: 무선 청소기
즐거움 3: 전기 kettle

브라비아(KDL-40X2000, 46X2000) 또는 홈씨어(DAV-LF1H)를 구입한 고객은 30명용 추첨하여 PLAYSTATION®3 중점

브라비아(KDL-40X2000, 46X2000)를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White 또는 Black 베젤+환경친화 스타일링키 증정

홈씨어(DAV-LF1H)를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브라온 무선 주전자 증정

제품구입 및 문의 |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 소니 공식서비스센터 062)514-3000

불교방송 임흥오거리 SONY광주전시장 | 나산클래스트 광천동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매일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8시 | www.epms.co.kr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생 PMS출신

= 2008학년도 총 1260명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포천중문의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전남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제1회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 개설강좌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한자능력시험 대비반

개강: 6월 1일

의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대표입시브랜드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 222-8088